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 특성이 한국 취업 동기에 미치는 영향 분석: TOPIK과 유학동기, 전공만족도 중심으로

김흥수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사과정)*

이상직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교수)**

국문 요약

본 논문은 한국으로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의 성별, 국가별 및 전공 등 개인 특성과 유학동기, 전공 만족도, 한국어 능력 등급이 취업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먼저 유학생들의 취업동기와 진로선택에 관여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요인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유학생들 4년과 졸업 후 국내 인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나 정부의 유학생 전공과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교육 관리, 정책 지원 사항을 위한 요인분석 기초 자료 활용이 논문의 목적이다. 자료 분석 방법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4 Version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동기에서는 일본, 중국 보다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북미 아프리카의 학생들의 평균이 높았다. 변수들 간의 결과를 보면 첫째, 유학동기와 TOPIK 간의 영향 관계는 외적 유학동기가 한국어 습득의 정(+)의 영향을 주었다. 둘째, 유학동기와 전공만족도 관계에서는 유학의 내적동기가 높아질수록 전공만족도 등급이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셋째, 유학동기와 취업동기의 관계에서는 내적 유학동기가 취업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내적동기가 높아질수록 취업동기 등급이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넷째, 전공만족도와 취업동기간의 관계를 보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계 전공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취업 동기는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다섯째, TOPIK은 취업동기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유학 내적 동기가 취업 동기에 영향을 미칠 때 매개변수인 전공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취업 동기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왔다. 결국 외적 유학동기가 TOPIK에 내적 유학동기가 전공만족도와 취업 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유학생들의 유학 동기와 전공만족에 관한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유학 초기부터 유학생을 위한 진로와 취업을 지원하는 대학과 정부의 교육 정책 방안 및 유학생 인재 육성에 관한 변인 자료로 활용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핵심주제어: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 개인 특성, TOPIK, 한국어능력 시험등급, 유학동기, 전공만족도, 취업동기

1. 서론

일본에서는 198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유학생 유치¹⁾가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 초반에는 유학생 10만 명 유치가 달성되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20년 늦은 2004년 “Study Korea Project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 7월 목표의 수정 발표를 했는데 2023년까지 20만 명 외국인 유학생 유치 목표를 만들었다.

이는 심각한 국내 학생 수의 감소와 구조개혁 등으로 국내 대학에 어려움이 예상 되는 바 외국인 유학생을 통하여 대학 정원을 충당하고 또한 국제 사회 경쟁률을 높이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표 1> 한국에 유학중인 유학생 수

구분	전체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학사	석사	박사	어학연수생	기타 연수생
2005	22,526	9,835	4,023	1,719	5,212	1,737
2010	83,842	43,709	12,480	3,811	17,064	6,778
2011	89,537	44,641	14,516	4,496	18,424	7,460
2012	86,878	40,551	15,399	4,639	16,639	9,650
2013	85,923	35,503	16,115	5,097	17,498	11,710
2014	84,891	32,101	15,826	5,709	18,543	12,712
2015	91,332	32,972	16,441	6,326	22,178	13,415
2016	104,262	38,944	17,282	6,878	26,976	14,182
2017	123,858	45,966	18,753	7,313	35,734	16,092
2018	142,205	56,097	21,429	8,510	41,661	14,508

출처 : 2019년6월 18일 KESS 교육통계서비스

* 제1저자,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사과정, heungsu58@naver.com

** 교신저자,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교수, lsj9669@naver.com

· 투고일: 2019-06-27 · 수정일: 2019-08-24 · 게재확정일: 2019-10-07

1) “유학생 10만 유치계획(「留學生受入れ10万人計画」)”:1983년, 나카소제(中曽根)수상이 제안한 외교정책의 하나 김화(2012년) 재인용

국가 교육통계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약 14만 2천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으며, 매년 엄청난 유학생 수의 양적 확대를 가져왔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6만 8537명) 베트남(2만7061명), 몽골(6768명), 우즈베키스탄(5496명), 일본(3977명), 미국(274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양적 확대에 대비하여 한국정부는 2009년부터 유학시스템 개선, 한국어 능력 시험등급(TOPIK)을 입학 조건 등 질적 강화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였다

한국으로 유학 온 학생들은 국제화라는 흐름에 따라 자신의 경쟁력을 갖추어 진로 확대에 도움을 얻고자 함이 목표인데 유학 기간 동안 한국어 문제, 전공, 음식과 문화차이, 특히 취업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김지훈·이민경(2011)은 한국 대학 관계자들의 관심은 정책적 차원에서 한국 대학의 국제화 지표로 수단화 되거나 지방 대학의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수입원이라는 도구적인 접근에 머물러 있으며, 유학생들의 이주 특성과 정착과정 및 향후 진로 등의 미시적인 부분에 관심이 미진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엄미정 외(2012)은 유학생들이 한국에 취직하고 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식과 이공계 유학생 중 다수는 유학이 끝나면 한국을 떠나 연구를 하거나 취업할 의지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임희진(2014)은 현재까지 유학생 유입의 역사가 짧고 한국에서는 아직 학위 취득 후 거취 양상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는 실정이며, 복락(2009)은 국내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직업선택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며 유학생 취업 활성화와 관련된 제언을, 안영진(2009)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 이주과정을 유학 전, 유학, 유학 후(귀국 또는 국내 체류)라는 3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의 이동 특성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했다.

오선진(2014)은 유학생에게는 유학생 생활 자체가 도전적인 과제이며 대학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등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확률이 커진다. 따라서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생활에 적절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향후 세계화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비하는 친한국과를 만들기 위한 인재로서 이들을 활용한 한국과 교류할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학생의 취업 동기와 진로 선택에 관한 연구는 양적으로 증대한 유학생 대비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으로 유학 온 학생들의 성별, 국적별 등의 개인 특성과 유학동기, 전공 만족도, 한국어 능력 등급 등이 취업 동기에 미치는 연구로, 유학생들의 취업동기와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요인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유학생의 졸업 후 국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학교나 정부의 유학생 전공과 취업을 위한 교육 관리, 정책 지원 사항을 위한 요인분석 자료 활용이 논문의 목적이다.

II. 선행연구 분석

2.1. 외국인 유학생의 정의

Dunne(2009)은 외국인 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s)은 유학생 신분으로 대학 및 대학이상의 학업(혹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자신의 출신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체류하는 자를 의미한다. 교육부는 한국어 연수 혹은 대학 정규과정 유학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으로 정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국 졸업 후 한국 대학원 과정으로 바로 온 유학생과 어학연수생 및 석·박사 과정을 제외한 순수 D-2 비자를 가지고 있는 학부생 중심으로 연구하였기에, 한국에서 D-2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으로 정의하였다.

2.2.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정광 외(1994)는 한국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평가기준 및 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의사소통적 접근방법을 적용 평가 방향을 설정하고, 신뢰성, 타당성, 실용성을 갖춘 평가체제로 한국어 능력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다.

서상규·김하수(1997)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를 위한 여러 여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시험의 기본적 구성과 문제 형식 및 출제 기준 등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1997년 제1회 한국어능력시험이 처음 실시되었다. 현재 한국 대학에 입학하는 유학생들의 자격 기준 완화로 인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입학이 많아지면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본적인 의사소통 외에 학업수행을 위한 의사소통능력, 학업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이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 생활의 어려움을 겪으며, 중도 탈락의 위협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김경원, 2015).

TOPIK은 1급부터 6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급이 최상위등급이다. 현재 한국 대학에 입학 조건은 최소 3등급이며, 졸업까지 4등급을 얻어야 하며, 유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을 측정하는 기본 지표이다.

2.3. 유학 동기

윤새은임(2019)은 자국을 떠나 한국 대학에서 일정기간 학업을 하게 만드는 심리적 이유, 욕구 충족, 행동원동력으로 정의 하였고, 유학 동기 분석은 유학 결정 심리적 이해와 자율적 결정인지 강요된 결정인지 자기 결정성으로 분석하였다.

Ryan & Deci(2000)는 일반적으로 동기는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로 구분되었다. 여기서 외재적 동기란 외적 보상이 주어질 때 동기가 유발되는 것이고, 내재적 동기는 기능을 향상시키고 환경을 탐색하고 무언가를 배우고 신기함과 도전을 추구하는 경향성에서 비롯된 동기이며, 내적 보상과 자기 목

적적 경험을 증시하는 것을 말한다(이민희·정태연 2008, 재인용). 정지삼(2010)은 유학 동기는 다른 나라에서의 교육 기회를 추구하는 학생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행위를 이끌어내는 힘이라 정의했고, Chen(2007)은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른 국제적 이동 요인을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구조적인 관점과 개인적 동기로 나누어 국가 간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이동을 설명하는 흡입 배출 요인과 행위자의 동기와 선택에 의한 요인이며, 이들은 글로벌 차원의 환경 속에서 유학으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기대와 열망, 외적 작용,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개인적, 가족적 욕구와의 협상 속에서 이루어진 내적 작용이 높다. 이동을 추진하는 국제적 거시적 구조와 해외학위자본을 통한 지위상승 욕구나 외국유학을 통한 문화자본과 경험의 획득 등 유학생들의 개인적인 기대, 교육적 자산, 사회, 문화적 자본을 고려한 현실적 동기에 의해 유학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이민경, 2011, 재인용)

황경아·홍지아(2018)는 중국 유학생의 연구 취득학위 가치 질적 연구에서 계급의 차이에 따른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가 정당한 권위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부르디외의 문화자본 개념을 적용하여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는데, 부모의 경제력, 부모의 권유, 한류 문화, 영어의 부담감, 취업의 가능성 등으로 한국 유학 선택을 나름대로 합리화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박은경(2011)은 유학생 개인의 주관적 동기요소를 유학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차원의 요소로 파악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인 차원의 요소를 개인 내적인 동기와 개인 외적인 동기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유학 동기의 분석은 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알아냄으로써 지속적 유학생 유치를 위한 중요 요소이며, 얼마나 전공 및 학업 만족의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하여 대학과 국가의 지원체계 정책 결정에 기본이 된다.

2.4. 전공 만족도

한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TOPIK이 높은 유학생들은 전공에 관한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보기에는 의문이 존재한다. 연구하는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전공만족에 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 하혜숙(2000)은 전공만족도에 대해 자신이 설정한 직업과 진로달성의 목표 기준에 따라 자기가 소속된 전공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결과로 자신의 전공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경험이라 하였다. 또 전공만족도는 학교생활 적응도에 영향을 미치고, 졸업 후 학생의 진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왕용 외(2016)은 유학생들의 입학할 때 단순 TOPIK을 통해 선발하기 보다는 적성 및 흥미도 테스트 및 졸업 후 일할 직무 등을 고려해서 충분한 사전 검증 후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했으며, 전공 선택 동기 중 내재적 동기가 높을수록 전공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유학생들의 교육 적응을 위한 대학

차원의 노력을 요구하였다. 이은미(2018)는 전공만족도와 취업인식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여 교육방향에 발전과 필요한 변화를 연구하여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고, 이미라(2014)는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고, 전공만족의 요인 중 조사대상자들의 순수한 전공 관심도와 사회적 인식이 전공만족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일반적 관심에 대한 만족과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 요인으로 한정하였다. 어윤경(2011)의 연구에서 전공 만족도 영향 요인들은 일반적으로 청소년 시기에 축적된 진로 상담 만족도가 대학 전공 선택의 영향을 주고, 진로 상담 만족도는 대학 전공 만족도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전공 만족도는 현재의 긍정적인 결과물과 미래의 긍정적인 결과물 사이에 연관되어 있고,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이 만족스러울수록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는 적으며, 더 높은 학업 평점을 얻는 경향이 있다(Nauta, 2007).

판다린(2017)은 한국 대학들이 유학생들의 가치관과 전공을 활용한 취업 정보와 기회제공 및 좋은 교육과정 운영이 한국어 전공 유학생의 전공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제언했다. 손승희 외(2013)와 유진우(2015)는 전공만족도 검사 하위 요인을 교과만족, 관계만족, 일반만족, 인식만족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2.5. 취업 동기

민경미(2011)는 취업동기를 경제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로 나누어 경제적 동기는 가구소득원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사회적 동기의 경우 자아실현, 자아정체성 확립, 사회참여 등을 목적으로 취업하고자 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 시장에 진입을 의미한다. 또한 진로동기에 대하여 개인의 다양한 진로과정의 행동 특성을 나타내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선미(2018)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직업 활동을 하고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을 성취한다는 것은 개인의 생계유지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실현, 경제적 욕구충족, 심리적 욕구의 충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대학생활 과정을 통해 진로를 선택하기 위하여 많은 준비해야 하며, 진로와 취업을 동시에 해결할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송익희(2016) 또한 취업 동기는 특정 기업이나 분야를 자신의 목표로 설정함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한다. 또한 취업 동기는 개인의 목표나 방향을 결정하게 하는 행동의 활성화 및 감소에 관여하기 때문에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손영화, 2010: 안정석 외, 2018).

이태현·김민지(2016)는 연구 결과에서 유학생의 유학 동기가 분명한 학생들은 진로 정체감이 높고, 취업 준비를 하고 취업 의지가 높은 유학생들 또한 진로 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예진·이기학(2010)은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et al,

1985)을 바탕으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동기 수준과 진로 준비행동의 증대 방안을 연구하였는데, 취업을 위해 차별화된 자신만의 전략을 갖는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이 학생들에게 요구되며, 진로준비행동에 개인차를 가져오는 변인에 대한 탐색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공윤정(2014)은 취업가능성이나 선택가능한 직업의 안정성과 같은 외적 동기로 진로 결정을 한 경우에 진로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요인을 연구하여, 진로 적응 향상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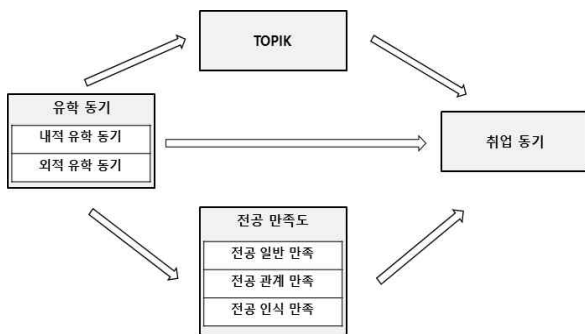
한편 많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 연구 중에 진학 및 취업을 함께 포함하는 진로에 관한 선행연구 동향을 조은희·유기웅(2017)은 유학생 실태와 특성에 맞춘 진로발달특징을 통합하여 이론적 관점 연구가 부족하며, 중국인 유학생 연구가 대다수이며, 행위자 경험을 탐색한 연구에서도 학교 적응, 학습경험을 연계한 진로경험 연구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학생들의 한국을 이해하기 위한 한국어 능력과 그 능력에 따른 전공의 만족도를 통해 유학 동기 중 어떠한 요인들이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 취업동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관계측정은 매우 의미가 있다.

III.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

3.1.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들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유학생 개인별 특성, TOPIK, 유학 동기, 전공만족도와 취업 동기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그림 1>의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3.2. 표본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대전 및 충청남도에 재학 중인 4년제 대학교 학부생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108명중 불성실 설문 대상자를 제외한 106부의 응답 설문으로 분석하였고, 설문 조사 기간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수집하였다.

<표 2> 설문지 구성 항목

영역	문항 내용	문항수
유학 동기	내적 유학동기	4
	외적 유학동기	3
TOPIK	한국어 능력	1
전공 만족도	일반 만족도	3
	관계 만족도	3
	인식 만족도	3
취업 동기	취업 동기	5
응답자의 개인 특성	성별 및 국적 등	4
	전체 항목 수	26

설문지 구성은 유학동기에 관한 내적 외적 유학동기 7문항, 한국어능력시험 등급 TOPIK 1문항, 전공만족도의 하위 요인 일반, 관계, 인식 만족도 9문항, 취업동기 5문항과 개인특성 4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3. 연구 자료의 분석방법

자료 분석 방법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4 Version을 이용하였고, 유학생 개인별 특성, TOPIK, 유학 동기, 전공만족도와 취업 동기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3> 연구 분석 방법

번호	분석 방법
1	외국인 유학생 특성의 빈도분석
2	주요 변수 기술 통계 분석
3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측정요인 간의 차이분석
4	외국인 유학생 각 변수의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5	측정요인 간의 분산 분석과 사후 분석
6	측정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7	연속형 측정 변수간 다중회귀 분석
8	단순회귀 분석을 통한 기설 검증
9	주요 변수 매개효과 영향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IV. 연구 분석 결과

4.1. 표본의 빈도분석

성별 분포는 남학생 32.1%, 여학생 67.9%로 여학생들의 비율이 높았으며, 학년별 분포는 1학년 29.2%, 2학년 29.2%, 3학년 20.8%, 4학년 16.0%로 1,2학년의 참여율이 높았다.

전공별 분포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문과 계열과 자연과학과 공학 부분의 이과 계열 그리고 기타 부분에는 간호 및 물리치료 등 의학관련, 예술관련 학과 등이 포함되었는데 인문/사회 55.7%, 자연과학/공학 23.6%로 인문/사회계열 학생

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출신국가 분포는 일본 35.8%, 중국 23.6%,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국가를 묶어서 30.2%, 북남미, 유럽, 아프리카 학생이 10.4%를 차지하였다.

<표 4> 외국인 유학생 인구학적 특징

구분	분류	빈도	비율 %
전공계열 (n=106)	인문/사회	59	55.7
	자연/공학	25	23.6
	기타	22	20.8
성별	남자	34	32.1
	여자	72	67.9
학년	1학년	31	29.2
	2학년	31	29.2
	3학년	22	20.8
	4학년	17	16.0
	졸업	5	4.7
출신국가	일본	38	35.8
	중국	25	23.6
	동남중양아시아	32	30.2
	북남미유럽	11	10.4

전체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시험 등급인 TOPIK 평균 등급은 4.43등급으로 조사됐다.

<표 5> 유학생 변수의 기술통계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TOPIK	3	6	4.4340	.89463

4.2.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측정문항에 대해 하위 요인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요인 추출방식은 주축 요인 추출을 실시하였고 요인회전 방법은 직각회전인 베리맥스법을 사용하였으며 아이겐 값을 기준 1 보다 큰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그 결과 설문지의 32개 항목 중 취업동기 여섯 번째 항목, 유학 내적 동기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 그리고 유학 외적 동기의 두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항목들은 타당도를 저해하여 분석에서 제외 시켰다.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한 KMO 측도는 0.810으로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도 유의확률 0.05미만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인 적재값은 모두 0.4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만족하였으며, 전체 요인이 설명하는 누적 분산 설명력은 69.940%로 나타나 구성된 6개 요인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로 chronbach's alpha계수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판단하는데 모두 0.6이상으로 나타나 주요 변수들의 신뢰도 또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6> 측정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요인	항목	요인 적재 값	고유 값	분산 비율(%)	Chronbach's alpha	아이겐 값
취업 동기	우수한 근무환경, 복리후생	0.916	6.126	29.173	0.886	3.272
	높은 직업의 안정성	0.814				
	급여 수준이 높아서	0.717				
	진보된 지식과 기술이 있어서	0.692				
	높은 개인발전 가능성	0.644				
전공 일반 민족	전공학과 교과 내용에 가치	0.839	2.897	13.797	0.870	2.739
	전공에서 배우는 교과 내용 매치	0.749				
	전공이 자랑스러움	0.717				
유학 내적 동기	새로운 인생에 도전	0.709	1.895	9.025	0.680	1.709
	더 좋은 취업 기회를 얻기	0.655				
	다양한 배경의 외국인 사귀기	0.580				
	한국문화와 학문적 경험	0.455				
전공 관계 민족	공부, 진로 교수 조언 기능	0.689	1.511	7.196	0.825	1.645
	언제든지 교수를 만남 기능	0.596				
	교수와 의사소통이 원활	0.570				
전공 인식 민족	나의 전공은 인기 우무	0.789	1.232	5.864	0.730	1.533
	전공은 졸업 후 진로에 도움	0.609				
	부모님의 내 전공 자부심	0.493				
유학 외적 동기	학비와 생활비가 적절	0.756	1.026	4.885	0.601	1.291
	지리적인 근접성	0.549				
	부모나 주변 사람의 권유	0.440				
KMO	Kaiser-Meyer-Olkin measure	0.810				
Bartlett	근사 카이제곱	1050.243				
	유의확률			0.000		
	설명된 총 분산비율(%)			69.940%		

4.3. 성별과 측정 변수간의 유의한 차이 분석

가설 1: 외국인 유학생의 성별에 따라 TOPIK, 전공만족도, 유학동기, 취업 동기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

남녀의 두 집단과 측정요인간의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으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성별에 따라 전공 만족도, 유학동기, 취업 동기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은 기각되었다. 다만, 한국어능력 시험 등급(TOPIK)은 약간의 유의확률을 넘었지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TOPIK점수가 높았다.

<표 7> 성별에 따른 주요변수들의 차이 분석

종속변수	집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	p
TOPIK	남자	34	4.41	0.85	-1.908	0.059
	여자	72	4.73	0.90		
전공 만족도	남자	34	3.50	0.69	0.328	0.744
	여자	72	3.46	0.68		
유학 동기	남자	34	3.40	0.60	-0.539	0.591
	여자	72	3.46	0.57		
취업 동기	남자	34	3.08	0.96	0.797	0.428
	여자	72	2.94	0.85		

4.4. 범주형 측정변수 간의 다변량 분산 분석과 사후 분석

4.4.1. 국가에 따른 분산 분석과 사후 분석

가설 2: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국가에 따라 TOPIK, 전공만족도, 유학 동기, 취업 동기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

국가에 따라 변수의 평균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가에 따라서 한국어능력 시험등급(TOPIK, $F=11.550, p<0.001$), 취업 동기($F=16.119, p<0.001$)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부분 채택 부분 기각이 되었다

<표 8> 유학생 국가에 따른 주요변수들의 분산 분석

종속 변수	집단	표본 수	평균	표준 편차	F	p	Scheffe
TOPIK	일본	38	5.00	0.74	11.550***	0.000	중국, 아시아, 북남미 < 일본
	중국	25	4.36	0.76			
	동남중앙 아시아	32	3.97	0.78			
	북남미유럽	11	4.00	1.00			
	일본	38	3.26	0.83			
전공 만족도	중국	25	3.50	0.58	2.225	0.090	-
	동남중앙 아시아	32	3.63	0.56			
	북남미유럽	11	3.68	0.44			
	일본	38	3.39	0.64			
	중국	25	3.64	0.57			
유학 동기	동남중앙 아시아	32	3.40	0.53	1.538	0.209	-
	북남미유럽	11	3.27	0.45			
	일본	38	2.51	0.75			
	중국	25	2.68	0.89			
	동남중앙 아시아	32	3.53	0.64			
취업 동기	북남미유럽	11	3.71	0.54	16.119***	0.000	일본,중국 < 동남아시아, 북미유럽
	일본	38	2.51	0.75			
	중국	25	2.68	0.89			
	동남중앙 아시아	32	3.53	0.64			
	북남미유럽	11	3.71	0.54			

* $p<0.05$, ** $p<0.01$, *** $p<0.001$

반면에 전공만족도와 유학 동기는 국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위 분석의 전체 분산의 동질성 유의 확률은 0.05보다 크게 나와 분산의 동질성을 만족하였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TOPIK과 취업동기에 대해서 세페의 사후 분석(Scheffe's post-hoc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한국어능력 시험등급은 일본 유학생이 중국, 동남중앙아시아, 북남미 유럽 유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 동기는 동남중앙아시아, 북남미유럽 유학생이 일본, 중국 유학생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4.2. 학년에 따른 분산 분석과 사후 분석

가설 3: 외국인 유학생의 학년에 따라 TOPIK, 전공만족도, 유학동기, 취업 동기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학년에 따라 변수의 평균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학년에 따라서 한국어능력 시험 등급($F=3.154, p<0.05$), 취업 동기($F=3.188, p<0.05$)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공만족도와 유학 동기는 학년에 관계없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전체 분산의 동질성의 유의 확률은 0.05보다 크게 나와 분산의 동질성을 만족하였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TOPIK과 취업동기에 대해서 세페의 사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어능력 시험등급은 4학년이 1,2,3학년 유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동기는 4학년과 졸업을 하거나 졸업 유예중인 유학생이 1,2,3학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부분 채택 부분 기각이 되었다.

<표 9> 유학생 학년에 따른 주요변수들의 분산 분석

종속 변수	집단	표본 수	평균	표준 편차	F	p	Strffe
TOPIK	1학년	31	4.06	0.85	3.154*	0.017	1,2,3 학년 < 4학년
	2학년	31	4.35	0.84			
	3학년	22	4.68	0.78			
	4학년	17	4.88	0.93			
	졸업	5	4.60	1.14			
전공 만족도	1학년	31	3.41	0.56	0.321	0.863	-
	2학년	31	3.55	0.63			
	3학년	22	3.47	0.71			
	4학년	17	3.39	0.75			
	졸업	5	3.67	1.33			
유학 동기	1학년	31	3.31	0.56	1.734	0.148	-
	2학년	31	3.38	0.55			
	3학년	22	3.65	0.51			
	4학년	17	3.40	0.70			
	졸업	5	3.79	0.44			
취업 동기	1학년	31	3.22	0.72	3.188*	0.016	1,2,3 학년 < 4학년, 졸업
	2학년	31	2.79	0.93			
	3학년	22	3.03	0.83			
	4학년	17	2.60	0.91			
	졸업	5	3.84	0.85			

* $p<0.05$, ** $p<0.01$, *** $p<0.001$

4.4.3. 전공 계열에 따른 분산 분석과 사후 분석

가설 4: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 계열에 따라 TOPIK, 전공만족도, 유학동기, 취업 동기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 계열에 따라 주요 변수의 평균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전체 분산의 동질성의 유의 확률은 0.05보다 크게 나와 분산의 동질성을 만족하였으나 모든 변수들은 유의 수준을 벗어나 전공 계열에 관계없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4는 전체 기각이 되었다.

<표 10> 유학생 전공 계열에 따른 주요변수들의 분산 분석

종속 변수	집단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TOPIK	인문/사회	59	4.44	0.88	0.025	0.975	-
	자연/공학	25	4.40	0.96			
	기타	22	4.45	0.91			
유학 동기	인문/사회	59	3.41	0.63	0.422	0.657	-
	자연/공학	25	3.53	0.59			
	기타	22	3.42	0.40			
전공 만족도	인문/사회	59	3.36	0.68	1.842	0.164	-
	자연/공학	25	3.65	0.58			
	기타	22	3.56	0.75			
취업 동기	인문/사회	59	2.29	0.89	1.651	0.197	-
	자연/공학	25	2.68	0.95			
	기타	22	2.50	1.01			

* p<.05, ** p<.01, ***p<.001

4.4.4. 측정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용되는 측정 요인들 간의 전반적인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pearson)의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OPIK은 취업 동기(r=-0.227, p<0.05)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반면 유학 동기와 전공 만족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전공만족도는 유학 동기(r=0.260, p<0.01)와 취업 동기(r=0.321, p<0.01)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유학 동기는 취업 동기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표 11>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변수	1	2	3	4
TOPIK	1			
전공만족도	-0.115	1		
유학 동기	0.133	0.260**	1	
취업 동기	- 0.227*	0.321**	0.153	1

* p<.05, ** p<.01, ***p<.001

4.4.5. 연속형 측정 변수간 다중회귀 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 및 채택, 기각 여부

4.4.5.1. 유학 동기와 TOPIK의 영향 관계

가설 5: 유학생의 유학 동기는 TOPIK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5-1: 내적 유학 동기는 TOPIK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5-2: 외적 유학 동기는 TOPIK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내적 유학동기와 외적 유학동기가 TOPIK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3.09, p<0.05),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5.2%(수정된 R제곱은 3.3%)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534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 되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모두 1.002여서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유학 외적동기만 유의한 결과

를 보여 주었는데, 표준화 계수 $\beta=0.224$, $p<0.05$ 로 TOPIK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학의 내적 동기 보다 외적동기가 높아질수록 TOPIK 등급이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따라서 5-2 “외적 유학 동기는 TOPIK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반면 5-1 내적 유학 동기는 TOPIK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각되었다.

<표 12> 유학생 유학 동기가 TOPIK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 변수	B	S.E	β	t	p	VIF
TOPIK	(상수)	3.878	0.526		7.371	0.000	
	유학 내적동기	-0.061	0.113	-0.052	-0.537	0.593	1.002
	유학 외적동기	0.241	0.104	0.224	2.329*	0.022	1.002
	F= 3.09 (p<0.05), R2= 0.052, adj R2= 0.033, D-W=1.543						

* p<.05, ** p<.01, ***p<.001

4.4.5.2. 유학 동기와 전공만족도의 영향 관계

가설 6: 유학생의 유학 동기는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6-1: 내적 유학 동기는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6-2: 외적 유학 동기는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학생의 내적 유학동기와 외적 유학동기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7.357, p<0.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2.5%(수정된 R제곱은 10.8%)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534로 잔차의 독립성과, 분산팽창지수도 모두 1.002여서 다중공선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유학 내적동기만 유의한 결과를 보여 주었는데, 표준화 계수 $\beta=0.352$, $p<0.001$ 로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학의 외적 동기 보다 내적동기가 높아질수록 전공만족도 등급이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따라서 6-1 “내적 유학 동기는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반면 6-2 외적 유학 동기는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각되었다.

<표 13> 유학생 유학 동기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 변수	B	S.E	β	t	p	VIF
전공 만족도	(상수)	2.267	0.383		5.911	0.000	
	유학 내적동기	0.315	0.082	0.352	3.814***	0.000	1.002
	유학 외적동기	0.017	0.075	0.021	0.226	0.822	1.002
	F= 7.357 (p<0.001), R2= 0.125, adj R2= 0.108, D-W=1.780						

* p<.05, ** p<.01, ***p<.001

4.4.5.3. 유학 동기와 취업동기의 영향 관계

가설 7: 유학 동기는 취업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7-1: 내적 유학 동기는 취업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7-2: 외적 유학 동기는 취업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학생의 내적 유학동기와 외적 유학동기가 취업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10.076, p<0.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6.4%(수정된 R제곱은 14.7%)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859로 잔차의 독립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유학 내적동기만 유의한 결과를 보여 주었는데, 표준화 계수 $\beta=0.383, p<0.001$ 로 취업동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학의 외적 동기 보다 내적동기가 높아질수록 취업동기 등급이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따라서 7-1 “내적 유학동기는 취업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반면 7-2 외적 유학동기는 취업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각되었다.

<표 14> 유학생 유학 동기가 취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 변수	B	S.E.	β	t	p	VIF
TOPIK	(상수)	1.874	0.486		3.854	0.000	
	유학 내적동기	0.444	0.105	0.383	4.244***	0.000	1.002
	유학 외적동기	-0.159	0.096	-0.150	-1.666	0.099	1.002
	F= 10.076 ($p<0.001$), R2= 0.164, adj R2= 0.147, D-W=1.859						

* $p<0.05$, ** $p<0.01$, *** $p<0.001$

4.4.5.4. 전공만족도와 취업동기의 영향 관계

가설 8: 유학생 전공만족도는 취업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8-1: 일반전공만족도는 취업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8-2: 관계전공만족도는 취업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8-3: 인식전공만족도는 취업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일반전공만족도와 관계전공만족도, 인식전공만족도가 취업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4.843,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2.5%(수정된 R제곱은 9.9%)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768, 분산팽창지수도 모두 10미만으로 나타나 잔차 독립성과 다중공선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관계전공만족만 유의한 결과를 보여 주었는데, 표준화 계수 $\beta=0.308, p<0.05$ 로 취업동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계전공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취업 동기는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따라서 8-2 “관계전공만족도는 취업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반면 8-1, 8-3 가설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각되었다.

<표 15> 유학생 전공만족도가 취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 변수	B	S.E.	β	t	p	VIF
취업 동기	(상수)	1.523	0.437		3.488	0.001	
	일반전공만족	0.014	0.122	0.014	0.115	0.909	1.789
	관계전공만족	0.351	0.141	0.308	2.497*	0.014	1.773
	인식전공만족	0.071	0.131	0.061	0.542	0.589	1.494
F= 4.843 ($p<0.01$), R2= 0.125, adj R2= 0.099, D-W=1.768							

* $p<0.05$, ** $p<0.01$, *** $p<0.001$

4.4.5.5. TOPIK과 취업동기의 영향 관계

가설 9: TOPIK은 취업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9-1: TOPIK은 취업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9-2: TOPIK은 취업동기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시험 등급 TOPIK이 취업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4.672, p<0.05$),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4.3%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809, 잔차 독립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유의한 결과를 보여 주었는데, 비표준화 계수 $B=-0.187, p<0.05$ 로 취업동기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계 TOPIK이 높아질수록 취업동기는 낮아지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따라서 가설 9-2 “TOPIK은 취업동기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은 채택되었고, 9-1 가설은 기각되었다.

김애화(2016)는 한국어능력에 따른 진로결정태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는데 협동학습을 위한 한국어능력과 진로결정태도 간에는 부(-)의 유의미한 상관관계, 그리고 내국인과의 교우관계를 위한 한국어 능력과 진로결정태도 간에는 정(+)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과 진로결정에 한국어 능력의 결정적 요인으로 볼 수 없다는 같은 연구 결과이기도 하다.

<표 16> TOPIK이 취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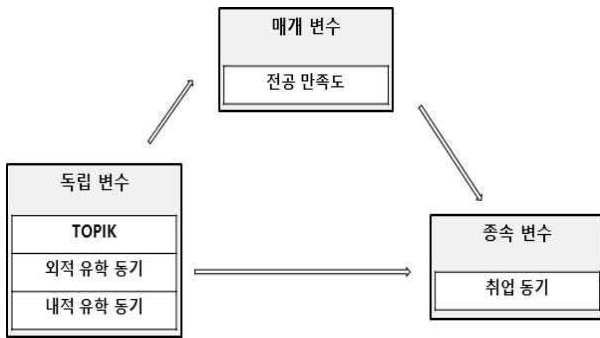
종속 변수	독립 변수	B	S.E.	β	t	p
취업 동기	(상수)	3.895	0.391		9.961	0.000
	TOPIK	-0.187	0.086	-0.207	-2.162*	0.033
	F= 4.843 ($p<0.01$), R2= 0.125, adj R2= 0.099, D-W=1.768					

* $p<0.05$, ** $p<0.01$, *** $p<0.001$

4.4.6. 주요 변수들과 취업 동기 사이에 매개효과와 영향 분석(위계적 회귀분석)

4.4.6.1. TOPIK, 유학 동기와 취업 동기 사이에 전공 만족도 매개효과 분석

가설 10: 외국인 유학생의 TOPIK, 유학 내적동기, 유학 외적 동기가 취업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전공 만족도는 부분 매개 역할을 한다.



<그림 2> 연구 모형

유학생의 한국어능력 시험등급(TOPIK), 유학 내적동기, 유학 외적동기가 취업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전공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케니의 위계적 회귀분석(Baron and Kenny'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그 결과 회귀 모형은 1단계(F=5.388, $p<0.01$), 2단계(F=8.355, $p<0.001$), 3단계(F=7.610, $p<0.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13.7%(수정된 R제곱은 11.1%), 2단계에서 19.7%(수정된 R제곱은 17.4%), 3단계에서 23.2%(수정된 R제곱은 20.1%)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968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1단계에서는 유학 내적동기($\beta=0.364$, $p<0.001$)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주었다. 즉 유학 내적동기가 높아질수록 전공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반면 TOPIK과 유학 외적 동기는 유의수준을 벗어나 에 영향력이 없었다. 2단계에서는 유학 내적동기($\beta=0.373$, $p<0.001$) 역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고,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 전공 만족도($\beta=0.199$, $p<0.05$)가 취업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또 유학 내적동기($\beta=0.304$, $p<0.01$)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유학 내적동기($\beta=0.373 \Rightarrow \beta=0.304$)가 취업 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 보다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유학 내적 동기가 취업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전공 만족도는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유학 내적 동기가 취업 동기에 영향을 미칠 때 매개 변수인 전공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취업 동기도 높아진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가설 10은 부분 채택되었다.

<표 17> 주요 변수와 취업 동기 사이에 전공 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종속 변수	독립 변수	B	S.E	β	t	p	F	R2 (adj R2)
전공 만족도	(상수)	2.595	0.473		5.465**	<0.001	5.388**	0.137 (0.111)
	TOPIK	-0.065	0.072	-0.112	-1.180	0.241		
	유학외적동기	0.037	0.077	0.046	0.485	0.629		
취업 동기	(상수)	2.593	0.592		4.382**	<0.001	8.355**	0.197 (0.174)
	TOPIK	-0.165	0.090	-0.188	-2.067*	0.041		
	유학외적동기	-0.115	0.097	-0.108	-1.187	0.238		
취업 동기	(상수)	1.922	0.662		2.903	0.005	7.610**	0.232 (0.201)
	TOPIK	-0.163	0.089	-0.166	-1.842	0.068		
	유학외적동기	-0.124	0.095	-0.117	-1.308	0.194		
	유학내적동기	0.353	0.108	0.304	3.260**	0.002		
	전공 만족도	0.259	0.122	0.199	2.124*	0.036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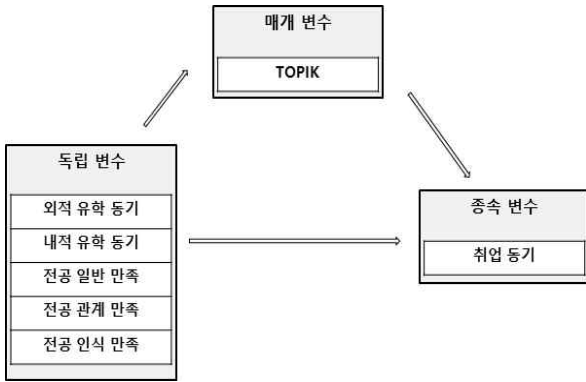
앞서 매개변수 영향분석을 위해 회귀분석한 결과 유학 내적동기가 취업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전공 만족도는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Baron과 케니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 이어 매개변수가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소벨 테스트(Sobel-test)를 실시하였다. 소벨 테스트는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방법으로 Z값이 ± 1.96 , p는 0.05 보다 작아야 유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 결과 유학 내적동기와 취업 동기 사이에서 전공 만족도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Z=2.469, $p<0.05$)

<표 18> 소벨 테스트를 통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Z	p
유학 내적동기 \Rightarrow 전공 만족도 \Rightarrow 취업 동기	2.469*	0.013

4.4.6.2. 전공만족도, 유학 동기와 취업 동기 사이에 TOPIK의 매개효과 분석

가설 11: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내적동기, 유학 외적 동기가 취업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TOPIK은 부분 매개 역할을 한다.



<그림 3> 연구 모형

유학 내적동기, 유학 외적동기, 전공 일반만족도, 관계만족도, 인식만족도가 취업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유학생의 한국어능력 시험등급(TOPIK)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회귀 모형은 1단계(F=2.035, $p=0.080$), 2단계(F=6.008, $p<0.001$), 3단계(F=5.611, $p<0.001$) 분석되어 1단계의 통계가 근소하게 유의 수준을 벗어났다. 2,3단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매개 변수 TOPIK 역시 3단계 $p=0.085$ 로 근소하게 유의 수준을 벗어나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가설 11은 기각되었다.

<표 19> 주요 변수와 취업 동기 사이에 TOPIK의 매개효과 검증

종속 변수	독립 변수	B	S.E.	β	t	p	F	R2 (adj R2)
TOPIK	(상수)	4.295	0.609		7.054	0.000	2.035	0.092 (0.047)
	유학외적 동기	0.268	0.104	0.248	2.574*	0.012		
	유학내적 동기	0.007	0.120	0.006	0.054	0.957		
	일반만족	0.152	0.129	0.152	1.183	0.240		
	관계만족	-0.165	0.149	-0.142	-1.104	0.272		
	인식만족	-0.206	0.139	-0.174	-1.472	0.144		
취업 동기	(상수)	1.303	0.552		2.362	0.020	6.008***	0.231 (0.193)
	유학외적 동기	-0.186	0.094	-0.175	-1.973	0.051		
	유학내적 동기	0.350	0.109	0.302	3.204**	0.002		
	일반만족	-0.033	0.117	-0.034	-0.285	0.777		
	관계만족	0.329	0.135	0.289	2.429*	0.017		
	인식만족	0.011	0.126	0.009	0.083	0.934		
취업 동기	(상수)	1.972	0.668		2.951	0.004	5.611***	0.254 (0.209)
	유학외적 동기	-0.144	0.096	-0.136	-1.497	0.138		
	유학내적 동기	0.351	0.108	0.302	3.245**	0.002		
	일반만족	-0.009	0.116	-0.010	-0.081	0.935		
	관계만족	0.303	0.135	0.266	2.248*	0.027		
	인식만족	-0.021	0.126	-0.018	-0.170	0.866		
	TOPIK	-0.156	0.090	-0.158	-1.737	0.085		

* $p<0.05$, ** $p<0.01$, *** $p<0.001$

4.4.6.3. 전체 가설 채택 여부

전체 가설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0> 전체 가설 분석표

번호	가설 내용	기법	결과
1	외국인 유학생의 성별에 따라 TOPIK, 전공만족도, 유학동기, 취업동기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	독립표본 t 검정	기각
2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국에 따라 TOPIK, 전공만족도, 유학동기, 취업동기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일원배치 다변량분석	부분 채택
3	외국인 유학생의 학년에 따라 TOPIK, 전공만족도, 유학동기, 취업동기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일원배치 다변량분석	부분 채택
4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 계열에 따라 TOPIK, 전공만족도, 유학동기, 취업 동기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일원배치 다변량분석	기각
5-1	내적 유학 동기는 TOPIK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중회귀분석	기각
5-2	외적 유학 동기는 TOPIK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중회귀분석	채택
6-1	내적 유학 동기는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중회귀분석	채택
6-2	외적 유학 동기는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중회귀분석	기각
7-1	내적 유학 동기는 취업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중회귀분석	채택
7-2	외적 유학 동기는 취업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중회귀분석	기각
8-1	일반전공만족도는 취업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중회귀분석	기각
8-2	관계전공만족도는 취업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중회귀분석	채택
8-3	인식전공만족도는 취업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중회귀분석	기각
9-1	TOPIK은 취업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회귀분석	기각
9-2	TOPIK은 취업동기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회귀분석	채택
10	TOPIK, 유학 동기가 취업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전공 만족도는 부분 매개 역할을 한다.	위계적 회귀분석	부분 채택
11	유학 동기가 취업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TOPIK은 부분 매개 역할을 한다.	위계적 회귀분석	기각

V. 결론

연구 결과 유학생 개인 특성에 따른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유학생의 남성과 여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유학동기, 취업동기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국어능력 시험등급(TOPIK)은 약간의 유의확률을 넘었지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TOPIK점수가 높았다. 지금껏 학교 프로그램 중에 정밀한 분석 없이 당연히 여학생의 한국어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것과 취업 동기는 남학생이 높을 것이라는 판단이 잘못되었고, 결과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둘째, 유학생 출신국에 따른 주요 변수 중 TOPIK과 취업 동기 두 변수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타국가에 비해 일본 유학생의 한국어 수준 등급이 월등히 높았으며 이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비슷한 속성으로 인한 결과로 보여 진다. 그러나 TOPIK 등급과는 무관하게 취업동기에서는 일본, 중국 보다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북미의 학생들의 평균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일본의 경제 활황에 따른 높은 취업률과 중국의 경제발전 속도에 따른 한국 취업

의지가 약한 반면 아직 개발도상국에 있는 국가의 학생들은 한국의 급여 수준과 발전 가능성 및 안정성에 관심이 많았다.

셋째, 학년별 분석도 변수 중 TOPIK과 취업 동기 두 변수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OPIK은 1,2,3학년 보다는 4학년이 높았으며, 취업 동기 또한 4학년과 졸업 유예자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학년 학생일수록 한국어 학습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 TOPIK 등급이 높았다고 볼 수 있으며, 취업 또한 현실성이 반영되었다고 사료된다.

주요 변수들 간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유학동기와 TOPIK 간의 영향 관계는 외적 유학동기 즉, 적절한 교육비와 생활비, 부모님과 주변의 한국 유학 권유가 한국어 습득의 정(+)의 영향을 주었다. 둘째, 유학동기와 전공만족도 관계에서는 유학의 내적 동기만 유의한 결과를 보였는데 유학의 외적 동기 보다 내적동기가 높아질수록 전공만족도 등급이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이는 다양한 배경의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학위를 취득하여 사회적 신분상승을 위하고, 더 좋은 취업 기회를 얻기 위함 이라고 해석된다.

셋째, 유학동기와 취업동기의 관계에서는 유학 내적동기만 유의한 결과를 보여 주었는데, 취업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학의 외적 동기 보다 내적동기가 높아질수록 취업동기 등급이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새로운 인생의 도전과 더 좋은 취업 기회를 갖기 위한 내적 동기의 반영이 한국 취업 동기와 연결 된다고 분석된다.

넷째, 전공만족도와 취업동기간의 관계를 보면 관계전공만족만 유의한 결과를 보여 주었는데,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계 전공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취업 동기는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이는 진로나 학습에 관한 이 학생과 교수 사이의 만족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TOPIK과 취업 동기간의 관계에서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 주었는데 TOPIK은 취업동기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계 TOPIK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취업 동기는 낮아지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이는 유학생의 개인 특성 중 일본 유학생의 비중이 35.8%로 상대적으로 타 국가에 비해 높으며, TOPIK 점수 또한 평균이 5등급으로 타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유학생이 많았다. 그리고 현재 두 나라의 고용 경제 환경을 본다면 일본 유학생들이 한국 보다 일본에서 취업이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부(-)의 영향을 보여 주었다고 분석된다. 여섯째, 유학 내적 동기가 취업 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전공 만족도는 부분 매개역할을 하였다. 즉 유학 내적 동기가 취업 동기에 영향을 미칠 때 매개변수인 전공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취업 동기도 높아진다고 판단 된다.

한국 취업 의지만 보면 아시아국가 유학생은 평균 3.69 북남미유럽 및 아프리카국가 유학생은 평균 3.91 반면 일본 유학생의 경우 평균 2.11로 거의 1.8배의 취업 의지를 보여 주었다. 이는 한국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은 향후 진로에 대해 한국을 디딤돌로 삼아 다른 국가로의 이동을 보이고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아시아 학생들에게 선호를 받는 것은 사회 문

화적, 지리적으로 가까워서라는 이민경(2012) 연구와 같다.

또 유학생의 44.2%가 졸업 후 국내 취업 의사를 보였으며, 허재준 외(2011)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길수록 한국에서의 취업 의사가 적극적임을 제시한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특히 중국, 베트남, 몽골 유학생이 취업에 적극적이었으며 이는 본국과의 경제 수준 차이가 그 원인으로 해석된 결과와 같음을 보여 주었다. 한편 취업 외 창업 부분에서는 국내 대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16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창업 희망 산업부문을 살펴보면 국내학생들은 서비스업 창업을 희망하고 있고, 이와 달리 유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창업 관심이 높았으며, 서비스업 창업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으로 나타났다(고인곤, 2012).

본 연구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유학생의 유학동기 변수와 한국 취업에 관한 연구에 있어 유학생들의 한국 취업 요인에 대한 전공 만족도와 한국어 능력 수준 및 국가별 특성을 포함함으로써 연구를 확장하였으며, 외적 유학동기가 TOPIK에 내적 유학동기가 전공만족도와 취업 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을 확인하였기에 유학생 입학 초기에 유학 동기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진로 교육을 세분화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남자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집중교육 강화,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국가별 유학생에 대한 진로, 전공 교육, 기업문화, 예절 교육 과정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학교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분석 자료에서 보여 주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유학생들의 유학 동기와 전공 만족에 관한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여, 중장기적 시각에서는 유학 이후의 진로와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 방안, 유학생 전문 인력에 대한 한국 기업 활용 방안, 졸업 후 본국-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파급효과나 국가 이미지 제고 등 더 고려될 여러 요인들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태현·김민지(2016)는 유학생 유치 시 명확한 유학 동기를 부여하고 졸업 후 취업 등 진로에 관한 상담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샬속에 자기 내면화가 명확한 유학 동기를 갖은 유학생은 대학생활 적응도 높으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과 졸업 후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김지훈·이민경(2011)은 외국인 유학생은 이미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인구 구성을 형성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다문화 저변을 넓혀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각적인 학문적, 정책적 관심과 유학의 선택과정, 정착과정, 대학생활, 향후 진로전략 등 다각적 연구가 필요로 하다는 결론과 맥이 같다.

본 분석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포함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유학생 유입의 역사가 짧고 국가에서는 아직 학위 취득 후 거취 양상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는 실정이다(임희진, 2014). 대부분의 외국인 유학생의 표본이 대전 및 충청남도 4년제 학부생을 중심으로 하였기에 한국 전체의 유학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아직 학부생이기 때문에 한국 취업에 대해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한국어 수준을 TOPIK이라는 등급으로 단순화 하였는

데 학업의사소통과 일반의사소통에 관한 한국어 변수를 다양화하여 분석이 필요하다. 유학생 대상 취업 통계자료가 전문한 실정이다. 대학별, 전공별, 국가별 한국에 취업한 유학생의 실정 파악이 불가능하였다. 빠른 시일 안에 취업현황 DB가 구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비한 더 정교한 진로계획 및 취업 준비 행동, 한국 취업 결과의 인과 관계로 넓히는 후속 연구가 많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REFERENCE

- 고인곤(2012).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창업 및 사업계획에 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7(2), 1-8
- 공윤정(2014). 외적 동기로 전공을 선택한 대학생의 진로적응 관련 요인. *한국진로교육학회*, 27(1), 1-18
- 교육통계서비스(2019). *외국인유학생*. <https://kess.kcdi.re.kr/index>, (2019년 6월18일)
- 김경환(2015). 외국인을 위한 학문목적 한국어 읽기의 학습 목표와 운영의 실제. *한국교양교육학회*, 6, 281-296
- 김애화(2016). *제한 외국인 유학생의 진로결정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김지훈·이민경(2011).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유학 동기와 경험 연구: 서울 A 대학 석사과정 학생들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30(2), 73-101
- 김 화(2012). *在日외국인 유학생 취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대학원
- 만다린(2017).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전공에 대한 선택 동기와 전공만족도에 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18(7), 459-465
- 민경미(2011). *취업동기와 교육환경이 취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청운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 박은경(2011). *외국인 유학생의 국제이주와 지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지역 대학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2), 113-139
- 복락(2009). *제한 중국유학생 졸업자의 직업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서상규·김하수(1997).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의 기본 모형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교육한글*, 10, 279-316
- 손승희·양정미·최종률(2013). 항공서비스 전공학생의 학과선택 결정 요인이 학과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25(6), 387-405
- 송익희(2016). *현장실습 중요도 인식이 현장실습 만족도와 취업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 안영진(2009).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의 이동 과정과 주요 배경. *대한지리학회*, 5, 27-29
- 안정석·구영애·조아람(2018). 외식전공 대학생들의 그릿(GRIT)이 취업 동기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8(4), 73-94
- 엄미정·이윤지·박동오·김도훈(2012). 이공계 분야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 현황과 유치방안. *정책연구*, 1-136.
- 오선진(2014). *외국인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 왕용·최우성·나상문(2016). 중국유학생들의 전공 선택 동기가 전공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대학생활적응의 조절효과. *한국산업관광학회*, 41(3), 83-111
- 유진우(2015). *체육계열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목표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새은임(2019). 수도권대학 베트남유학생의 유학동기-경기도 P 대학을 중심으로. *다문화아동청소년학회*, 4(1), 1-40
- 이민경(2012). 지방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학동기: A대학 아시아 유학생들의 한국유학 선택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18(2), 177-201
- 이민희·정태연(2008). 자기결정이론을 토대로 한 학습동기 경로 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 14(1), 77-99
- 이선미(2019). *상담전공 교육대학원생의 진로동기, 진로장벽에 관한 질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에진·이기학(2010). 진로동기수준에 따른 군집 유형과 진로준비 행동과의 관계: 자기결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직업교육학회*, 29(2), 267-287
- 이은미(2018). *항공 승무원에 대한 전문직관이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경영대학원
- 이태현·김민지(2016). 유학생의 진로정체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취업진로학회*, 6(1), 71-88
- 임희진(2014). *외국인 유학생의 진로계획 영향 요인 분석*. 서울대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광·고창수·김정숙·원진숙(1994). 한국어 능력 방안 연구: 언어숙달도의 측정을 중심으로. *한국어학회*, 1, 481-538
- 정지심(2011). *스위스 호텔학교 유학생의 유학동기, 교육서비스품질 평가,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아시아권 학생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조은희·유기웅(2017). 아시아 유학생의 진로선택 및 일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교육학연구회*, 23(2), 77-111
- 하혜숙(2000). *대학생의 학과(학부)만족과 학교만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황경아·홍지아(2018). 제한 중국 유학생의 유학동기와 문화자본으로서의 취득학위의 가치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91, 319-357
- 허재준·김세윤·노용진·오계택·Randall, W. Green·서환주(2011). *유학생 시장의 특성과 정책과제*. 한국 노동 연구원
- Ahn, J. S., Ku, Y. A., & Jo, A, R.(2018). A Study on the Effects of GRIT on Employment Motive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Dining and Culinary Art Education. *Korea Employment & Career Association*, 8(4), 73-94
- Ahn, Y. J.(2009). International students' migration process and background in Korea.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5, 27-29
- Bok, R.(2009). *A Study of the Career Choice Factors for Chinese Graduates from Korean Universities*.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 Chen, L. H.(2007). Choosing Canadian graduate schools from afar: East Asian students' perspectives, *Higher Education*, 54(5), 759-780
- Cho, E. H., & Ryu K. U.(2017). A Narrative Inquiry of Career Choice and Work Experience of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3(2), 77-111
- Deci & Ryan(1985). The general causality orientations scale: Self-determination in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2), 109-134
- Dunne, C.(2009). Host Students' Perspectives of Intercultural Contact in an Irish University. *Journal of Studies*

- International Education*, 13(2), 222-239.
- Eum, M. J., Lee, Y. J., Park, D. H., & Kim, D. H.(2012). Current Status and Attraction of Foreign Masters and Doctoral Students in Science and Engineering Field.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12(25)
- Gong, Y. J.(2014). Factors affecting college students adjustment who decided on their majors primarily based on extrinsic motivat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7(1), 1-18
- Ha, H. S.(2000).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 Hur, J. J., & Noh, Y. J., Oh, K. T., Seo, H. J., & Randall, W. Green.(2011). Characteristics and Policy Tasks of the International Student Market. *Korea Labor Institute*
- Hwang, K. A., & Hong, J. A.(2018). The Research of the Chinese Foreign Student's Motivation to Study Abroad in Korea and the Value of Their Achieved Degree as a Cultural Capital. *Korean Association for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tudies*, 91, 319-357
- Jung, J. S.(2011). *A study of the motivations for studying abroad, the service quality of education, and th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Master Thesis, Sejong University.
- Jung, K., Ko, C. S., Kim, J. S., & Won, J. S.(1994). Study of Korean language proficiency plan. *The Association for Korean Linguistics*, 1, 481-538
- Kim, A. H.(2016). *The study on the career decision attitude of the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Master Thesis, Kunkook University.
- Kim, H.(2012). *About study of international student' employment in Japan*. Master Thesis, DongYui University.
- Kim, J. H., & Lee, M. K.(2011). A Qualitative Study on Choice of Study Destination and University Life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Students at a University in Seoul, Korea.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30(2), 73-101
- Kim, K. H.(2015). Learning Objectives and Practices of Academic Korean Reading for Foreigners. *The Korean Association of General Education*, 6, 281-296
- Ko, I. G.(2012).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Business Planning and Starting up a Business in Korea.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2), 1-8
- Lee, E. M.(2018). *The Effect of Students' Perceiving Professional Value on the Major Satisfaction and Job Expectation*. Master Thesis, Korea Aerospace University.
- Lee, M. H., & Jung, T. Y.(2008). Examination of the Learning Motivational Process Models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4(1), 77-99
- Lee, M. K.(2012). Mobility motivation of Asian students in a Korea's regional university: narratives of A university students on their choice of institution and interpretations.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18(2), 177-201
- Lee, S. M.(2019). *Qualitative Research on Career Motivations and Career Barriers of Counseling Major 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 Thesis, Kukmin University.
- Lee, T. H., & Kim, M. J.(2016). Foreign student's career identity's effect to their adaption in university life. *Korea Employment & Career Association*, 6(1), 71-88
- Lee, Y. J., & Lee, K. H.(2010). Subtypes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Vocational Education*, 29(2), 267-287
- Lim, H. J.(2014). *Factors influencing international students' career plans in Korea*. Master Thesis, Seoul University.
- Margaret M, Nauta(2007). Assess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Academic Majo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 446-462
- Min, K. M.(2011). *A study Satisfaction on the Women's Reemployment of the job Ability Development training and Education Environment*. Master Thesis, Chunwoon University.
- Oh, S. J.(2014). *A Study on Foreign Student's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Master Thesis, Junnam University.
- Park, E. K.(2011). A Study on International Migration of Foreign Students and Their Adaptation to Local Community.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1(2), 113-139
- Ryan, R. M., & Deci, E. L.(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 Seo, S. K., & Kim, H. S.(1997). Basic research for establishing the basic model of th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The Korean Language Society*, 10, 279-316
- Song, I. H.(2016). *A Study on the Influence of Perception of Field Practice Importance on Satisfaction & Intention to find a job*. Master Thesis, Kwangwoon University.
- Son, S. H., Yang J. M., & Choi, J. L.(2013). The Influence on Department conclusive Selection Factors on the Department. *The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and Leisure*, 25(6), 387-405
- Thandar Linn(2017). A Study on the Motivation for Selection of Korean Language Major by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ir Satisfaction about their Majo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7), 459-465
- Wang, L., Choi, W. S., & Na, S. M.(2016). Control Effect of College Life Adjustment in the Influence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of Chinese Students to the Major Satisfaction. *Tourism Research*, 41(3), 83-111
- Yoo, J. W.(2015). *The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Decision Attitude in Physical Education Department*. Master Thesis, Mokpo University.
- Yun, S. E. Y.(2019). Motivational Study for Vietnamese Students in Metropolitan University. *The Multicultural Child and Youth Studies*, 4(1), 1-40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Characteristics of Foreign Students and Motivation of Korea Employment: Focus on TOPIK, Motivation to Study in Korea, and Major Satisfaction

Heungsoo Kim*

Sangjik Lee**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otivation of the employment in Korea with gender, nationality, motivation of studying in Korea, major satisfaction and Korean proficiency level of foreign students who are studying in Korea. The second purpose is to analyze the current factors, to leverage educational management and to make and support some policy of Minister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 order to promote utilization of employment of the students in Korea during 4 years of studying. This paper is used by IBM SPSS Statistics 24 Version for data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average of students in Southeast Asia, Central Asia and South and North America Africa was higher than Japan and China in terms of motivation of employment in Korea. First, the external motivation to study in Korea has affected TOPIK with positive influence.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to study in Korea and the majors' satisfaction, the higher the internal motivation of study, the higher the majors' satisfaction level.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to study in Korea and motivation of the employment in Korea, internal motivation to study has a positive effect on motivation of the employment. As internal motivation increases, grade of the motivation of the employment increases. Fourth,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employment showed positive (+) effect.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major satisfaction, the higher the motivation of the employment. Fifth, TOPIK has a negative effect on motivation of the employment. It means that external motivation was the main factor that positively influenced TOPIK and internal motivation was also main factors that positively influenced both major satisfaction and motivation of the employment in Korea. Sixth, when the internal motivation has an effect on motivation of Korea employment, the higher the major satisfaction as the parameter, the higher the motivation of Korea employment.

Therefore, it will be helpful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studying motivation and major satisfac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to be used as basic data on education policies of universities and governments supporting the career and employment for international students.

KeyWords: foreign students,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foreign students, TOPIK,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grade, motivation to study in Korea, major satisfaction, motivation of Korea employment

* Hoseo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Venture, doctoral program, heungsoo@naver.com

** Hoseo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Venture, Professor, Information management, lsj9669@naver.com